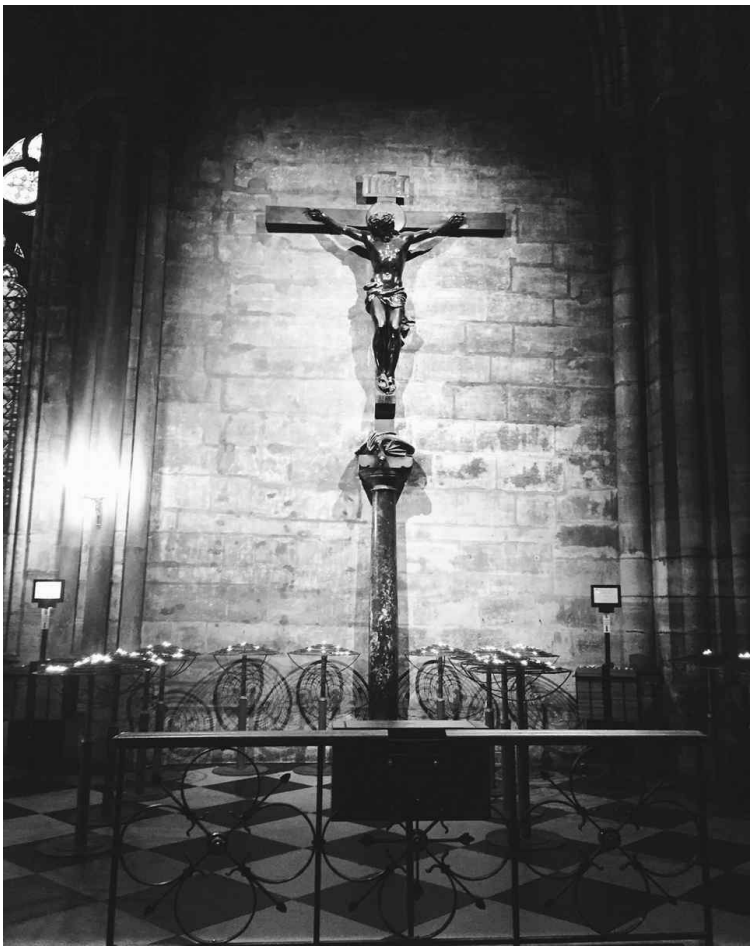
만남

2020년 3월
통권 182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 목 차 ❖

신부님 칼럼	+ 내면을 다듬어나가는 사순시기------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4
교리	사회교리의 이해----------	7
기도하는 삶	----------	10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축일과 전례	----------	17
헌납금 명단	----------	18
공동체 소식	----------	19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3월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 중국 가톨릭 신자들

중국 교회가 복음에 한결같이 충실하며 더욱 일치를 이루어 나가도록 기도합시다.



내면을 다듬어나가는 사순시기

봄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추위 걱정으로 옷을 몇 겹씩 입어야 하는 사람, 당당하게 걷지 못하고 잔뜩 웅크린 채로 다녀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빨리 봄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나마 추위는 조금 잘 견디는 편인 저 역시도 봄을 기다립니다.
봄은 모든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는 계절이며 회색빛으로만 가득 찼던 세상에 형형색색의 빛깔을 다시 되찾아주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봄은 그래서 희망의 계절이며, 생명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봄은 짧아졌습니다. 언제 봄이 왔는가 싶게 곧 여름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아니면 함부르크의 경우처럼 겨울이 좀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예전에는 4월에도 눈이 내린 적이 있다고 하던데 지금은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봄이 짧아졌다는 건 생명의 숨소리가 짧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새순은 시간을 두고 땅속에서 튼튼해진 다음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밉니다. 그런데 그런 숨고르기의 시간 없이 성급하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꽃샘추위라도 만나게 되면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봄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던 그 순간이 봄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처럼 봄이 짧아졌기 때문에 마음들이 성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가시밭길을 묵상하는 사순시기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봄에 있어서 특별히 의미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급해지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좀 더 튼튼해지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향해가는 그 길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에 골고타까지 오르셨다면 십자가의 무게를 덜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 부인들도 만나고 베로니카 성녀에게 당신의 피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내어주며 천천히 나아가십니다. 그러다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세 번이나 쓰러지시기도 합니다.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봄에 우리는 좀 더 차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묵직한 호흡이 함께 하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볍고 서두르는 이 세상에서 사순시기는 차분한 마음으로 내면을 다듬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다면 봄이 짧아지는 걸 슬퍼하지 않고 좀 더 튼튼하게 다져진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얼어버린 생명이 보다 질긴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그렇게 다시 희망의 계절이 됩니다. 봄이 완전히 채워줄 수 없는 형형색색의 찬란함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마태 17,1-9)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90장 "십자가에 가까이"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7 1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2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3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5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6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7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17 7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언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 마음에 드는 자녀라고 느낍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변모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산에 초막을 짓고 그 자리에 하느님 나라가 도래한 기념을 하려하지만, 하느님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말을 더 듣도록 이끕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는 세례의 장면을 연상시키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고통 받는 종으로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받는 아드님, 마음에 드는 아드님으로서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샤바즈 바티는 파키스탄 최초의 소수민족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그는 유일한 그리스도교인 장관으로서, 신성모독법 폐지 등 소수민족과 종교인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2일, 그는 정체 모를 괴한들에게 총격을 받고 4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샤바즈 바티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정확한 시간은 몰랐을 지라도, 자신이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알았습니다. 인구 95%가 이슬람교 신자인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성모독법 폐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살해당할 줄 알았기에, 그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샤바즈 바티는 고통의 길을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택한 사람입니다. 샤바즈 바티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고통의 길을 알면서도 따라가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안락함에 머물지 않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90장 "십자가에 가까이" 3절과 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43. 과학기술의 발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과학적인 삶은 인간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이동 수단의 발달과 통신수단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온 인류를 일일생활권으로 묶어 지구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에 충분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톨릭 사회교리에서는 인간과 피조물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간추린 사회교리」는 「사목헌장」을 인용하면서 인간이 이용하는 피조물의 세계가 인류의 과학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개인적 집단적 인간 활동, 곧 인간이 여러 세기를 거쳐 자신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려는 저 거대한 노력 그 자체가 하느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일이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은 땅과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의와 성덕으로 다스리며, 하느님을 만물의 창조주로 알고 자기 자신과 모든 사물을 하느님께 다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간은 만물을 다스려 하느님의 이름이 온 땅에 빛나게 하여야 한다.”(「사목헌장」 34항).

따라서 가톨릭교회는 인류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그 자체로 긍정적인 결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자신의 재능과 힘으로 만들어낸 작품들을 하느님의 권능에 배치된다거나 이성적 피조물을 창조주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인류의 창작품들을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징표이자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의 결실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교리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가톨릭교회가 인류의 과학이나 기술 발전에 반대하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교리에 따르면 과학과 기술은 우리 인류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고, 우리 모두 감사히 그 혜택을 입고 있으므로 교회는 그것들을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놀라운 창조적 능력의 산물로 여기고 있다고 봅니다(「간추린 사회교리」 457항 참조).

그러나 모든 과학적 기술의 적용에는 핵심이 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함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입니다. 만일 이러한 존중이 동반되지 않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있다면 그러한 발전은 오히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죽음으로 이끌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과 함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발전이어야 합니다. 그런 발전이 될 때 상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더불어 사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44. 이주노동자를 배려하는 사회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온 지 30여 년이 되었고, 이미 100만 이주노동자가 한국인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이들은 여전히 국외자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성인 4000명과 청소년 3640명을 대상으로 벌인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31.8%로 미국(13,7%), 호주(10.6%), 스웨덴(3.5%) 등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 사업장 내 폭행, 열악한 노동환경과 숙소, 외국인인력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악용한 인권 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동만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쓸모없어지면 버리는 일회용 종이컵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들에게 부여된 인권을, 노동권을 제약할 권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로 파견하시어 그들을 환대하는 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대한 고을은 구원받았지만, 그들을 배척하는 고을은 하느님 나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이들에 대한 환대는 그리스도교의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이며, 예수님을 사랑으로 품에 안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인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마태 25장 참조).
갈수록 이주노동자들은 늘어나고, 그 중 일부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기도 합니다. 비록 이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가난한 나라 출신인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리는 힘겨운 노동에 자신을 내던지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소중한 희망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노동력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합법적 신분이냐 그렇지 않으냐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배타적인 혈연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될 수 없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곧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왜 조국을 떠나 낯선 곳에 둥지를 틀었을까요? 이들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기에, 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절박한 처지를 착취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노동하는 인간, 23항)고 단호하게 선언한 교회는 이들을 손님을 맞아들이듯이 따뜻하게 품으라고 호소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241항 참조). 아울러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을 자국인과 동등하게 누리도록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생각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신중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45. 장애인과 인권

한국에서 ‘장애등급제’는 의료적 기준에 따라 장애 등급을 나누어 차등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개개인의 환경과 경제적 수준 등을 반영하기 어렵고,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수혜대상자라는 인식을 고착시키고, 장애 정도에 따라 사람을 등급으로 분류함으로써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당신의 자리는 거기가 아닙니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당신에게는 모든 이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가 당신더러 그곳에 있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당신더러 아무 시선 없는 곳에 숨으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오그라든 손이 보기 싫어 숨으셨습니까? 당신의 오그라든 손이 보기 싫다고 없어지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당당하게 주저하지 말고 당신이 있어야 할 곳, 내가 초대하는 곳으로 기쁘게 나오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숨기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이들의 시선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십시오.’(마르 3,1-6에 대한 묵상) 예수님께서는 장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죽여 지내야 하는 이들을 당신 가까이로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애를 지닌 이들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들의 완고한 마음을 녹이십니다.

많은 경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장애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비장애인들의 비뚤어진 시선입니다. 이 시선은 여러 가지 그릇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때로는 값싼 동정심으로, 때로는 무시나 배척으로 표현됩니다.

장애인은 자신이 지닌 육체적 정신적 장애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편견과 차별적인 여러 사회 제도로 말미암아 인간다운 삶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장애인 역시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비록 겉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장애를 지닌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지닌 ‘장애’에만 집착하는 양심을 거스르는 내면의 장애에 스스로를 얽어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애인을 향한 편견에서 벗어나, 그들을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손과 발, 마음이 되어줌으로써,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쌓인 내적 장애를 허물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 온전한 인간 주체이다. … 장애인들도 모든 권리를 가진 주체이므로, 그들은 자기 능력에 따라 가정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148항)

★ 빛과 소금의 역할(이순자 마리아)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을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3-16)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고 늘 내 행실을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는 성경 말씀이다. 주일에 신부님께서도 강론하였고, 또 미리 읽으면서 준비한 성경 말씀이 그날따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미소한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 마음에 새기며 돌아온 주일이었다.

주일 저녁부터 시작한 태풍은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져 궂은 날씨의 월요일 새벽이 왔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은 18세가 넘어 행동반경이 노쇠해져서 이제는 늙은 반려견이라 돌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궂은 날씨에도 새벽 6시 30분 즈음 밖은 캄캄하고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대소변을 해결하기 위해 억지로 끌고 나갔다. 집 주위에 있는 빈병 버리는 곳을 지날 때였다. 길거리가 온통 유리 조각들로 깔려 있었다. 바로 옆에는 탁아소와 초등학교가 있고 정문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길을 지나오면서 곧 있을 아이들의 등굣길이 걱정되었다. “어떤 몰염치한 인간의 짓이지?” 중얼중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우산도 쓸 수 없을 정도의 비바람을 맞고 집에 돌아와서 빗자루와 쓰레기 봉지를 챙겨 유리 조각이 늘린 길거리를 청소하고 주위에 깨져 늘려 있는 큰 조각들은 통 속에 집어넣었다. 그 주위의 쓰레기들도 봉지에 집어넣어 집 쓰레기통에 버렸다.

아침 7시 아직은 캄캄하고 인적도 없지만 손가락이 다칠까 조심하면서 그 주위의 쓰레기들도 봉지에 집어넣어 집 쓰레기통에 버렸다. 비바람을 맞으면서 치운 그 새벽의 일이 하루의 좋은 결실로 느껴졌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나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한 것 같은 것, 즉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소박하지만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고, 이웃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주일미사와 평일미사에 나오지 않는 교우들에게 안부 인사를 묻고, 공중화장실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도 휴지 한 장이라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런 사소한 일들이다. 하지만 나는 하느님께 오늘도 기도한다. “주님! 저는 그래도 쓰레기를 줍는 사람,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이것은 물질의 쓰레기만이 아니다. 질투의 쓰레기, 욕심의 쓰레기, 욕망의 쓰레기들이 내 영혼에 끼어들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이 아닌 가까운 남편과 자녀들, 심지어는 죄 없는 이웃에게 버릴 때도 있다. 오늘도 못마땅한 행동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분노의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할지 살피고 있다. 이제는 태풍도 물러 갈 기미를 보여 비바람이 약해지고 있다. 지금 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단들이다.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자연의 중요함을 깨닫고 좀 절제하고 세상의 정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나 하나라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나 하나라도, 남이 다칠까봐 유리조각을 치우고, 나 하나라도 이웃에게 환한 웃음으로 인사하고, 나 하나라도 이웃에게 안부를 묻고, 나 하나라도 세상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아닌 줍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하면서 주님의 빛 속으로 길을 걷고 싶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청하며, 쓰레기를 찾고 주워보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걷는 길에 장애물을 치워가다 보면 참된 순례자의 길을 나도 걷겠지요.(2020년 2월 11일에)

★ 사랑으로 피운 내 인생의 꽃(최영숙 테레사)

하느님의 사랑은 내 영혼의 양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내 성전의 보혈로 성모님의 사랑은 내 일생의 안식처로 부모님의 사랑은 내 존재의 증인으로 형제들의 사랑은 내 핏줄의 나눔으로 부부간의 사랑은 내 하나의 목숨으로 자녀간의 사랑은 내 생명의 번성으로 친구와의 사랑은 내 마음의 길동무로	이웃과의 사랑은 내 신앙의 복 짓기로 연령과의 사랑은 내 영혼의 구원으로 자연과의 사랑은 내 가슴의 감동으로 내 인생의 꽃이 사랑으로 활짝 피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날개짓 할 때 하느님의 사랑이 나의 행복으로 우리들의 축복으로 가득하리라! 2020년 2월, 성체조배 중에

질문

40대 남성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테크가 왠지 좀 죄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하느님보다 돈을 섬기는 거 아닌가 하고요. 세례 전부터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나가시는 분에게 좀 더 후하게 보상을 해드리고 이윤의 일부는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제 생각이 과한 죄책감인지 아니면 경매 같은 재테크는 안하는 것이 나은 건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이찬 신부님(성 골롬반외방선교회 · 다솜터심리상담소장)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관심사는 각자 자신의 건강, 그리고 재물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한 먹거리, 자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를 챙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열심히 자기 재산을 늘리는데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님은 당연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문제가 바로 코앞에 와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 폭넓게 확산돼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이를 먹어서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특히 생계를 이어갈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일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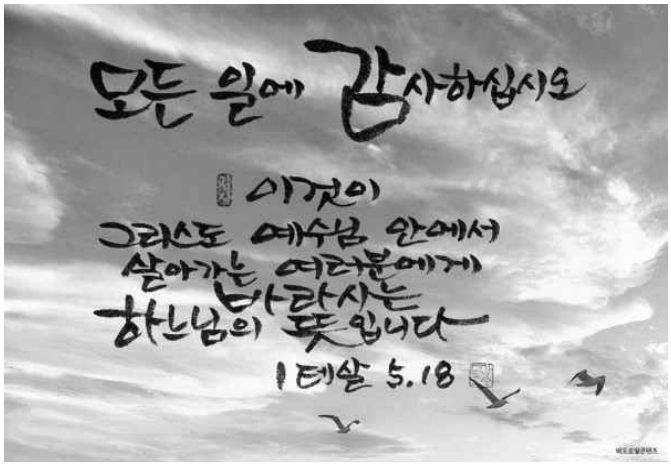
사실 누구나 재물에 대해서 관심과 욕심을 갖고 있겠지요. 또한 재물이 삶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 어느 정도라는 것이 사람마다 기준과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심리도 당연히 있겠지요. 어느 면에서 인간의 기대와 욕심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누구도 장담 못할 건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미래의 삶에 대한 우리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불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긴장을 유지한다면 다가올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게 되고 이처럼 잘 대비를 하게 되면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경우에도 그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지나친 불안감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면 즉 위험이 없거나 사라졌을 때에도 계속해서 불안

을 느낀다면 이것은 병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심리 치료와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이윤 추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교회에서도 노동을 통한 이윤 추구는 인정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진 돈을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여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것은 현대사회의 재산 증식의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형제님이 살아내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인적 생활방식에서는 좀 더 많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제님이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진 것이 교회의 정신에 비추어 보아서 괜찮은지 스스로 한 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현재의 생활이나 미래 대비책에서 불안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는 경제적 수익이 있다고 보는 외부 정보에 나의 노력을 덧붙여 얻은 결과로 더 많은 재산적 이익이 생기면 어려운 이웃과 공동선의 입장에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신지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공동의 선을 위해서 잘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재물은 자신의 것입니다만 혹시 하느님께서 일시적으로 자기에게 관리를 맡기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공동선이란 입장에서 보자면 집을 내어 주고 나가는 사람은 그런 배려를 받지 못한 쪽에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내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요한 13,35)





★ 영화 '기생충'과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전원 신부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오락영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라 하더라도 끝물이 되어야 영화관을 찾게 됩니다. 영화 내용에 대한 기대보다도 왜 저토록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오히려 우리 사회 대중들의 심리에 관심이 있어서 챙겨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기생충'을 일찍부터 챙겨본 이유는 이 영화의 무엇이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까지 받을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화 전문가들이 말하는 완성도보다 '기생충'이라는 독특한 제목을 통하여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우리 사회의 단면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영화는 큰 상을 받은 영화답게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립된, 그야말로 모든 이야기와 장면들이 온통 은유(메타포, metaphor)로 가득 차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시작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소품 하나, 대사 한마디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영화가 복잡하거나 출연진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두 가족, 즉 상류사회 가정을 대표하는 저택에 사는 IT 기업의 CEO 박 사장 가족과 피자박스를 접으며 반지하방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백수 김기택(송강호) 가족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부와 가난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상투적으로 부자를 혐오하거나 가난한 이를 미화하는 그런 내용과 다릅니다. 오히려 영화 속 박 사장은 IT 기업의 CEO라는 직책이 말해주듯,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예의 바르고 가정적인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특히 그의 아내 연교(조여정)는 세상물정 모르고 사람들의 거짓말에도 잘 속을 정도로 단순하고 순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편 기택의 가족은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거짓과 사기를 치며 세상을 살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백수 가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반지하방에 살아가는 가족이 상류사회 가정에 기생충처럼 감염해 들어가는 과정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어 사실 영화 내내 관객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영화의 줄거리에서 보듯, 기택의 아들 기우는 대학생으로 학력을 위조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박 사장 딸의 고액 과외선생으로 취업을 합니다. 이때부터 기우 가족은 한통속이 되어 남의 말을 잘 믿는 박 사장의 아내를 교묘하게 속여 기우 동생 기정(박소담)은 미술 과외선생으로, 아버지 기택은 박 사장의 운전기사

로, 마침내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가정부마저 몰아내고 엄마까지 가정부로 들어오게 합니다. 박 사장 집에 취직해 들어오게 된 기택 일가족은 어느 날 박 사장 가족이 모두 캠프를 떠나자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며 상류사회의 삶을 향유합니다.
이때 전 가정부가 그 집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제 영화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그 저택에는 지하 깊숙한 곳에 부자들이 전쟁이나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비밀 벙커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하 벙커 안에 전 가정부의 남편이 숨어 있었는데, 전 가정부 부부가 일찍이 그곳에서 소위 상류사회에 '기생'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두 가족의 만남은 마치 기생충이 요동쳐서 생기는 복통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터로 바뀝니다. 결국 두 가족의 전쟁은 기택의 딸도, 전 가정부 부부도 희생될 뿐 아니라 무고한 박 사장도 기택의 칼에 찔려 죽게 되면서 사건이 끝이 납니다. 이제 그 저택의 주인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독일인으로 바뀌고, 지하 벙커의 주인도 바뀌어서 살인 수배를 받는 기택이 그곳을 차지하여 밤이면 서양 음식을 훔쳐 먹으며 사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부자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입은 자주색 옷이란 겉옷을 말하고 아마포는 속옷을 말하는데 둘 다 값비싼 천으로 만든 옷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도 명품으로 입고 다닐 만큼 사치스런 부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거지 라자로를 보고 학대하거나 쫓아내는 일도 없는 것으로 봐서 그저 자신의 생활에만 몰두하며 사는 영화 속의 박 사장 가족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호화로운 집에 살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상류사회의 사교모임에 참석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도 가난의 냄새가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부모로부터 대물림받은 부로 그들만의 세상을 향유하며 살면서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안정되게 살면 그만인 사람입니다.
반면 라자로는 영화 속의 기택 가족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헐벗은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택 가족은 가난하지만 사기라도 쳐서 상류사회에 기생하며 먹고 살 꾀라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비유 속의 라자로는 부자가 버리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살아야 하고,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몸에 종기를 핥아도 내칠 힘마저 없을 정도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눈에 라자

로는 상종할 가치가 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비유는 흑백 필름을 인화할 때 흑이 백이 되고 백이 흑이 되는 것처럼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둘은 죽은 후, 라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있고 부자는 불길 속에서 혀를 식혀줄 한 방울 물이라도 내려주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자와 라자로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있어서 부자는 희망마저 완전히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구렁을 만든 이는 라자로가 아니라 바로 부자일 것입니다. 그 건너갈 수 없는 깊고 넓은 구렁은 현세에서 부자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라자로와의 심리적 거리였을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부자들의 눈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마치 기생충처럼 파고들어 상류사회의 평화로운 가정을 파멸시키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에 비친 기택 가족의 행동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속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시선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대로 보면 서민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연민을 드러내십니다. 설령 그들이 세리나 창녀로 살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태 12,31 참조). 오히려 당시 종교나 사회의 기득권자인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의 혹독한 질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은 가난한 이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서로 아귀다툼하며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저변으로 몰아내고 그들과 경계를 짓고 번드레한 예의를 차리며 살아가는 정치, 사회,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영적으로 보면 더 깊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기생충'은 부자를 두둔하는 것도 가난한 자를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만의 상류사회에 금을 그어놓고 가난한 이들은 '공생'할 수 없고 오로지 '기생'하면서나 그들 세상에 가 닿을 수 있는 씁쓸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부자와 라자로' 비유는 가난한 이들과의 사이를 단절하는 우리 내면의 구렁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영화 '기생충'이 세계인이 공감하는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었다면, 부자와 라자로는 영화가 보여준 현실 세계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그 너머의 세계가 존재함을 보여줌으로써 진정 구원된 세상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 3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요안나	김 주 영	9일	카타리나	오 경 은
3일	가밀라	허(이)명자	19일	요셉	이 현 묵

❖ 3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9일	카타리나	박미량(H)	19일	요셉	문지서(H) 이재홍(O)
12일	세라피나	김보경(H)			
13일	살롬	현우(H)			

❖ 3월 성가번호 ❖

3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1일	115	226	517	280
8일	116	219	168	121
15일	117	212	518	123
22일	찬 양 미 사			
29일	119	340	178	489

❖ 3월 미사 전례 봉사자 ❖

3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1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허길조(안드레아) 허명자(가밀라)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청년회
8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요셉 마리아회
15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1구역
22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주일학교	2구역
29일	정명옥(살로메) 최성자(벨라뎃다)	한말조(마리안나) 권지연(안드레아)	김진호(프란치스코) 심동근(다니엘)	3구역

❖ 자진헌납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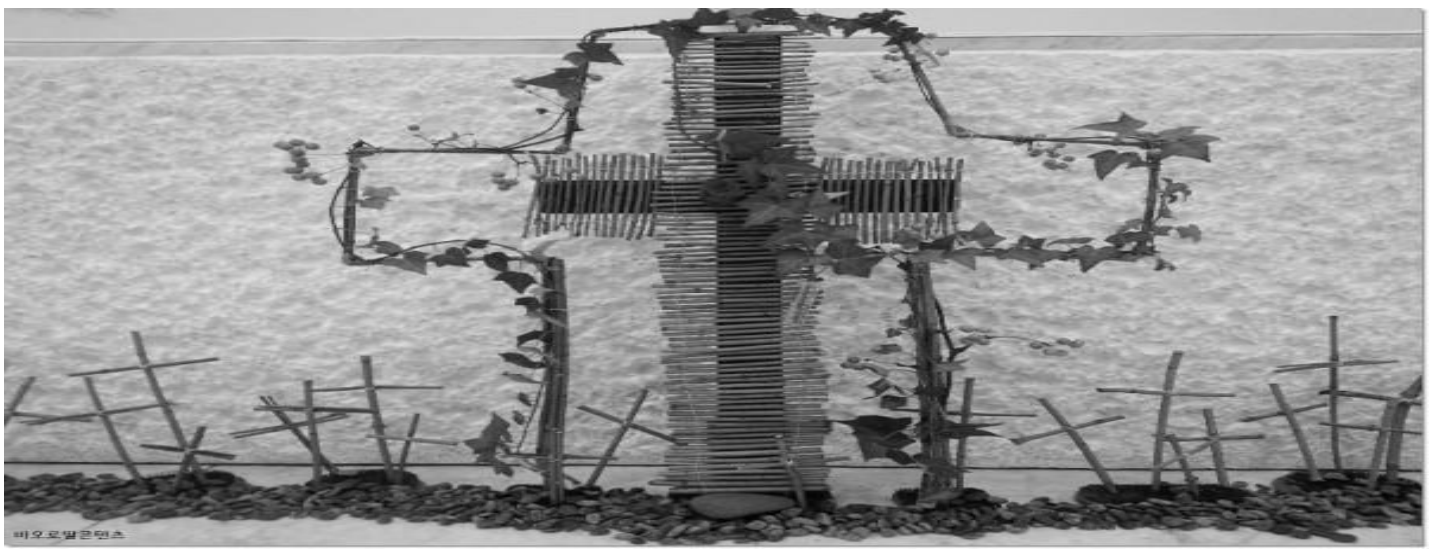
2020년 1월 1일 - 2020년 2월 7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 현금납부 :

강신행	권지연 Rabe	김경렬 (12월 29일)	김경미	김민옥	김효정	김건
김순임	강순행	서세원	신옥희	우동천	윤석순	이현묵
이정수	정순문 (12월 29일)	최순남	최장용	최현봉	김계희 Tunas	최현봉
황영선	현영애					

◆ 구좌입금 :

김대현	김치수	김진호	김춘옥 Zerbock	송문규	육종인	이명원
이성원	이석우	이정훈	이영원	이중지 Rother	이정은	정정숙
홍경영	허두욱	허길조	김치수	김효경	배성우	신옥희
이명원	이정훈	정정숙	허두욱			



❖ Hamburg 공동체 소식

1. 사순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드림으로써 은총과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2. 3월 1일 주일미사는 교환사목으로 오시는 베를린 한인 천주교회 차광호(파스칼) 신부님과 함께 미사를 봉헌합니다. 신부님을 환영합니다.

3. 3월 3일 화요일 저녁미사 후에는 믿음의 샘 꾸리아가 있습니다.

4. 3월 8일 일요일 주일미사 후에는 사목회 월례회가 있고, 청년회 소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에는 2구역 소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5. 3월 19일 목요일부터 3월 22일 일요일까지 Königswinter Marienhof에서는 유럽 제2차 혼성 꾸르실료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는 채규순(수산나) 자매님이 참여합니다. 꾸르실료 교육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3월 22일 일요일 주일미사는 찬양미사로 봉헌합니다.

7. 3월 26일 목요일에는 연령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8. 3월 28일 토요일 10시, 만남성당에서는 꾸리아가 주관하는 아치에스 행사가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들뿐만 아니라 협조단원들도 함께 레지오 봉헌사열식(아치에스)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2월 미사는 2월 2일 토요일 전 회장님 서선영(아우구스티노) 김순자(젤트루다) 가정에서 주님 봉헌 축일 말씀의 전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교우들이 가져온 초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3. 3월 미사는 3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고광완(토마스 아퀴나스) 박경자(세라피아) 가정에서 가정미사로 봉헌할 예정입니다. 주소는 Syker str. 179a, 27321 Thedinghausen입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2월 공동체 미사는 2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봉헌했습니다.
4. 3월 공동체 미사는 3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봉헌할 예정입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2월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미사는 2월 8일(토)에 연중 제5주일 주일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이날 미사 후에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신자들이 윷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3. 3월 미사는 3월 14일(토) 오후 5시에 Pernickelmühle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목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김형웅(야고보)
				총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3월(성 요셉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 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일	사순 제1주일, 삼일절		교환 사목(베를린)
2	월			
3	화		믿음의 샘 꾸리아	
4	수			
5	목	경칩		
6	금			
7	토			브레멘 공동체
8	일	사순 제2주일	청년 소공동체	
9	월			
10	화			
11	수			
12	목			
13	금		2구역 소공동체	
14	토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15	일	사순 제3주일		
16	월			
17	화			
18	수			
19	목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유럽 제2차 혼성 꾸르실료 Königswinter
20	금	춘분		
21	토			
22	일	사순 제4주일	찬양미사	
23	월			
24	화			
25	수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26	목		연령회	
27	금			
28	토		10시 아치에스(만남 성당)	하노버 공동체
29	일	사순 제5주일		
30	월			
31	화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안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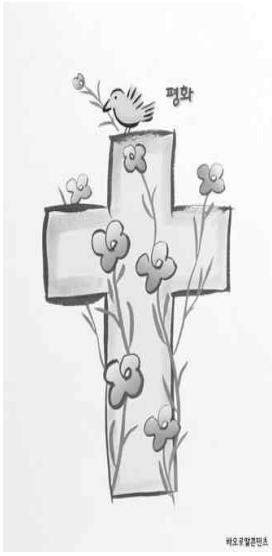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